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 재고찰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1967년 중세 기술사가인 린 화이트(Lynn White Jr.)는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라는 논문에서 인류가 당면한 생태 위기의 근원은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자연을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와 그에 영향을 받은 근대과학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가 생태 위기의 뿌리라는 주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많은 논의에서 생태 위기의 근본이 기독교에 있다는 방식으로 린 화이트 가설(Lynn White thesis)을 해석하였다. 린 화이트의 이 글은 기독교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본 발표에서 발표자는 린 화이트의 논문에 대해 개신교계와 가톨릭계가 각각 보인 반응을 검토한다. 연후에 린 화이트가 자신의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또한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한 해결방안을 현대 기독교 생태학 진영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대화하면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적이며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 재고찰

- I. 린 화이트(Lynn White Jr.),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
- II. 린 화이트의 주장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
 1. 프랜시스 웨퍼: <환경오염과 인간의 죽음>
 2. 가톨릭: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 III. 린 화이트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무엇인가?

1. 린 화이트,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

- 중세 기술사가인 린 화이트(Lynn White Jr.)가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라는 글을 1967년 *Science*에 발표
- 이 글은 **기독교계**에서 **생태**와 관련하여 매우 많이 언급된 **논쟁적인 글**이었으나, 이 글의 부분적인 주장만 주로 언급되었고,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매우 드물게 다루어짐
- 이 글의 **전체적인 주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 개요

1. 우리의 **기술 및 과학** 운동은 **중세**에 시작해서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획득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2. **중세의 과학 기술 발전의 정신적 배후**에는 **기독교**가 놓여있다. 근대과학은 **기독교 신학을 모체**로 하여 나온 것이다.
3. 기독교 특히 **서방 기독교**는 지구상에 나타난 종교 가운데 가장 **인간중심적**이다.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교의 애니미즘**을 무너뜨림으로써 **기독교**는 자연 대상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을 착취할 수 있도록 했다.
5. 그런데 기독교는 복합적인 신념이며 그 결과는 다른 문맥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6. 중세 **서방교회** 지역에는 기술이 두드러지게 발전한 반면에,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문명화된 지역인 **동방교회** 지역에서는 그리스 대포가 발명된 7세기 말 이후로는 현저한 기술상의 발전이 없다.

7. 동방교회에서는 죄가 지적인 무지이며, 구원은 신의 조명과 정통교리(orthodoxy) 즉 명쾌한 사고 속에서 발견된다고 믿었다. 반면에 서방교회에서는 죄가 도덕적인 악이며, 구원은 올바른 행위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고 믿었다. 동방교회의 신학은 주지주의적(intellectualist)이었고, 서방교회의 신학은 주의주의적(voluntarist)이다. 그리스 성자는 명상을 했지만 서양의 성자는 행동을 했다. 자연의 정복에 대한 기독교의 함의는 서방교회적인 환경에서 더욱 쉽게 출현했다.

8. 현대 기술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서방교회적인 것으로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조철성과 인간이 자연의 정당한 주인이라는 기독교 교리의 주의주의적 실현이다.

9. 중세의 과학 기술 발전의 정신적 배후에는 기독교가 놓여있으며, 그 결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기독교는 거대한 죄책(a huge burden of guilt)을 지고 있다.

10. 새로운 종교를 발견하거나 옛 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생태계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비트족들이 관심을 가지는 선(禪)불교 같은 아시아의 종교는 서양 사회에서 성장하기 힘들다.

11. 린 화이트는 서양 자체 내에서,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12.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상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이다.

13. 프란치스코는 인간을 피조물에 대한 군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신의 모든 피조물 사이에 민주주의적인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다.

14. 인간이 자신의 방식으로 신을 찬양하듯이, 개미나 불꽃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창조자를 찬양하는 개미 형제와 불꽃 자매이다.

15. 성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지배의 개념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동등하다는 사상으로 대체한다.

16. 린 화이트는 성 프란치스코의 사상이 **범신론(pantheism)**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에 성 프란치스코의 사상은 독특한 **범심론(panpsychism)**의 일종으로서,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만물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지닌다.**

17. 린 화이트는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론자들의 수호 성자**로 추천한다.

II. 린 화이트의 주장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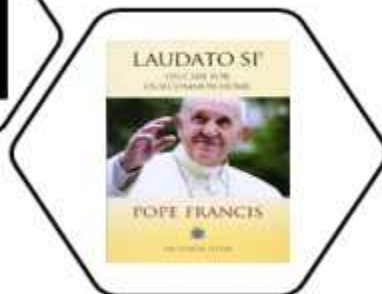
• 린 화이트 주장의 **핵심적 요소**를 다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1) 자연관 형성에서 종교가 가장 핵심적이다.
- 2) **중세의 과학 기술 발전의 정신적 배후**에는 **기독교**가 놓여있으며, **근대과학**은 기독교 신학을 모체로 하여 발전한 것이다.
- 3) 기독교 특히 **서방 기독교**는 지구상에 나타난 종교 가운데 가장 **인간중심적**이다.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개척/착취(exploit)**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4)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지배 관념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동등하다**는 사상으로 대체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대안이다.



논쟁의 핵심: 자연 착취가 허용되는가?

- 린 화이트: 기독교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개척/착취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 린 화이트에 대한 기독교계의 비판은 ‘자연 착취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다.



프랜시스 웨퍼: <환경오염과 인간의 죽음>

• 프랜시스 웨퍼는 린 화이트의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1967)가 출간된 이후에 <환경오염과 인간의 죽음(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1970)에서 린 화이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다.

1) 인간 생태계가 종교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웨퍼는 동의한다.

2) 웨퍼는 인간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이 지배권을 오용하였으며 자연을 착취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와 신학자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배권을 가르치고 실천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성경적인 '지배'는 만물을 그 자체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하며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즉 사랑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점이다.

3) 성 프란치스코가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존중하고 또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에 대해 웨퍼는 동의한다. 또한 웨퍼는 자연이 인간의 유용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에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며,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동료 피조물임을 강조한다.

4) 웨퍼는 성 프란치스코의 사상이 범신론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린 화이트의 논문과 성 프란치스코를 소개한 후 곧장 범신론에 대해 다름으로써 (웨퍼가 성 프란치스코의 사상을 범신론으로 보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웨퍼는 범신론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또한 육체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는 플라톤적 이원론(영혼/몸, 정신/물질)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가톨릭: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 현재의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2015)를 통해 오늘날 생태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이 회칙에서 교황은 “유다-그리스도교 사상이 무분별한 자연 착취를 조장하였다”는 견해가 “교회가 이해한 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린 화이트의 주장을 비판한다.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지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강력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 자연에 대한 '지배'(창1:28)는 인간이 지구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아야'함을 의미하며, 인간과 자연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 인간이 자신보다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피조물을 착취한 점을 인정**
- 환경 위기 앞에서 우리가 **생태적 회개**를 실행해야 함을 강조
-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하느님의 피조물에 해를 끼쳐 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도 화해해야 함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 성 프란치스코의 관점을 전혀 비판하지 않음
- 그의 관점이 범신론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도 않음
- “찬미받으소서”라는 시에서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성 프란치스코의 사상이 자연을 인간이 단순히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관점으로 이해함**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 웨퍼가 범신론이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듯이, 교황 회칙은 ‘인간 중심주의’ 문제를 재고함
- 런 화이트의 ‘**인간 중심주의**’ 비판이 ‘**생태중심주의**’로 향하는 것은 막고자 함
 -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피조물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가 반드시 ‘생태 중심주의’에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태중심주의는 오늘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문제들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지성, 의지, 자유, 책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이 세상을 책임 있게 대할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III. 린 화이트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무엇인가?

- 적지 않은 기독교 학자들은 린 화이트의 주장을 기독교에 대한 도전을 간주하고 **호교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 그러나 **인간이 정당한 지배권을 오용하였으며 자연을 착취했음을 인정**하는 편이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이다.
- 생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생태적 회개**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린 화이트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무엇인가?

- 오늘날 생태론 내에서도 수많은 갈래가 있으며, 심지어 상호 간에 대립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 사이의 논쟁이다.
- **경미한 차이를 강조하여 생태론을 분열**시키기보다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지구를 살리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공동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린 화이트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무엇인가?

- 기독교 생태학자들은 흔히 창세기 1:28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의 의미가 인간이 인간 이외 피조물의 존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청지기로서 땅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만일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그러하다면 현재의 번역은 그 원 뜻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오해가 있어 왔기에 **‘정복’과 ‘다스림’을 적절한 번역어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